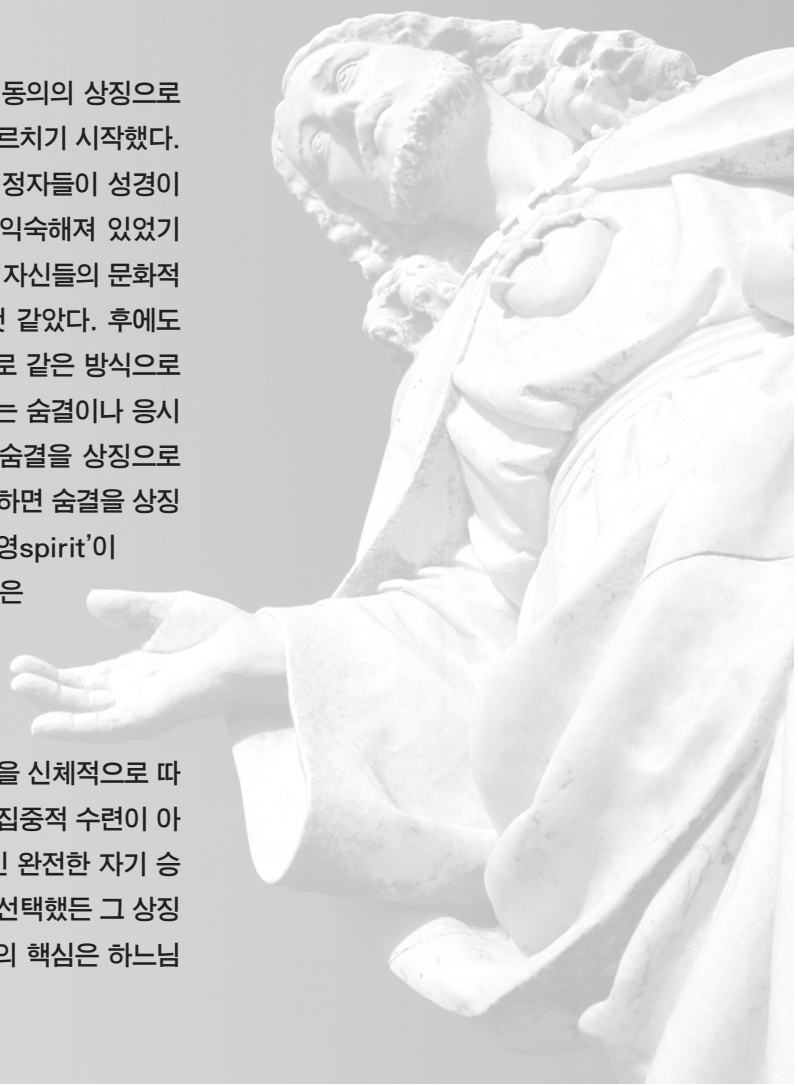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13 상반기 제10호

발행_ 한국관상지원단 **편집**_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우)138-200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2-2 MODS빌딩 512호 **Tel**_ 02-421-1968 **Fax**_ 02-409-1968 www.centeringprayer.or.kr

하느님의 현존에 동의하기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7권 2호(2011년 6월), 토머스 키팅/이청준 옮김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동의의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향심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거룩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대부분의 피정자들이 성경이나 전례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룩한 단어의 사용을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 훈련에 적합하다고 느낄 것 같았다.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향심 기도를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소개했지만, 사람에 따라 더 끌릴 수 있는 숨결이나 응시 등의 다른 상징들을 이용했다. 거룩한 숨결을 상징으로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련이 성장하면 숨결을 상징으로 택하는 경향도 있었다. 성경에서 '영spirit'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숨'이며, 그것은 항상 현존하는 생명의 상징이다. 그저 '숨'을 주시한다는 것은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수련이며 수련하는 도중에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그것은 숨결을 신체적으로 따라가거나 호흡을 헤아리는 동양의 주의 집중적 수련이 아니다. 결국은 향심 기도의 최고의 체험인 완전한 자기 승복에까지 성장하면 자신이 어떤 상징을 선택했든 그 상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향심 기도 수련의 핵심은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복음 6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신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일상적 자의식에서부터 숨으라는 부르심 같다. 어쨌든 개념적 내용을 담지 않은 기도를 할 때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관상은 인간 본성의 타고난 능력이며,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우리가 순수한 관상을 얻으려 애쓴다고 해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노력은 또 하나의 자아도취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저 긴장을 풀고, 아무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저절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때에 다양한 기회에 우리의 심령에 활동하신다. 성령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저항을 약화시키시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 내적 정화가 가장 명백하다.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믿음의 눈에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에 우리가 특정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향심 기도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느님에 대한 느낌이나 하느님 부재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긴장을 풀고 마치 지나다니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 생각들과 평화롭게 있으면 된다.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침묵 안에 계시는 만큼 생각들 안에도 계신다.

외적 침묵은 내적 침묵으로 인도하고, 내적 침묵은 내적 대화를 놓아버리게 한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있으면서도 평정감을 유지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즉시 이해로부터 초연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하느님 현존의 섬세함에 발맞출 수 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저 존재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해한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느낌에 주목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 신적 빛이 우리 존재의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신비가들은 깨어남과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한다. 숨어서 드리는 기도는 가사假死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특정한 인식을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현존에 승복하는 지속적 태도다. 이런 관점에서 하느님의 부재 또한 하느님이시다.

단순성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8권 1호(2011년 12월),
토머스 키팅/이청준 옮김

단순성이란 인간 기능들이 통합과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것은 산전체가 떠받치고 있는 산봉우리와 같다. 산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각의 본성에 따라 작용한다. 식물적, 동물적, 인간적 기능들이 협력하며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기여하면서, 보다 발전된 의식 차원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들이 영적 의지에 완전히 승복하며, 이제 영적 의지는 자신 안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신적 의지에 온전히 개방된다.

결국 단순성이란 모든 부분들이 완전한 질서를 이루어 전체가 편안하고 즐겁고 평화롭게 작동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쉽고 자연스러우며 조화롭기에 단순해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성이란 복잡다단함의 결과다. 말하자면 단순성은 여러 요소들이 통일된 목표를 향해 질서를 이루고, 하느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놓아버리는 훈련을 하겠다는 동기를 가짐으로써 생겨난다.

단순성으로 가는 길은 단순한 생활양식과 기도 생활과 더불어 시작된다. 단순성은 우리 안에 분열과 평화의 결핍을 낳는 의식적 무의식적 집착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단순성은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린다. 격앙된 감정은 우리를 갈가리 찢어놓으며 (관계와 소속감 속에서 누렸던) 삶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어쨌든 일상의 부침浮沈이나 재앙 같은 것이 집착과 과도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단순성은 일상에서 관상과 활동이 합일을 이룬 것이다. 관상과 활동이 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따로 분리된 것도 아니다. 둘은 구별되지만 하느님께서는 관상 안에서나 활동 안에서나 똑같이 계신다. 둘 중 어느 하나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단순성의 바탕은 우리 자신, 하느님 그리고 모든 실재에 관한 진리이다. 단순성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즉 진정한 겸손이다.

향심 기도의 일곱 단계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8권 2호(2012년 6월),
토머스 키팅/이청준 옮김

향심 기도의 핵심은 우리 안의 하느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것이다. 소식지에 나오는 관상지원단 로고는 이러한 동의가 대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암시한다. 아래에 소개된 향심 기도의 일곱 단계는 로고의 네 단계를 확장시켜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승복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이 일곱 단계를 향심 기도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침묵**(Silence)은 우리 안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현존(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라 부르신다)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외적 침묵이 도움이 된다.

2. **고독**(Solitude)은 내적 침묵에서 흘러나온다. 내적 대화를 무시함으로써 (대 그레고리오 성인이 말하는) '하느님 안에서의 쉼'과 '특정 내용이 없는 의식 상태'로 인도된다.

3. **연대성**(Solidarity)이란 우리가 하느님과 전 인류와 피조물 전체와 하나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4. **섬김**(Service)은 기도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안에서도 성령의 지속적 영감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연대성(유대감)의 자연스런 표출, 곧 우리 안의 하느님이 이웃 안의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5. **침잠**(Stillness)이란 예수님께서 '숨어서 드리는 기도'(마태 6,6)라고 말씀하신 그것이다. 이것은 이성적 개념을 넘어선 하느님 현존 체험, 자신이 사로잡힌 생각과 욕망을 넘어선 하느님 현존 체험이다.

6. **단순성**(Simplicity)은 관상과 활동의 통합, 말하자면 일상의 부침이라는 이중적 현실 가운데서, 통합적 시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이다. 관상은 활동과 같지 않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7. **승복**(Surrender)이란 하느님께 자신을 전부 내어드리는 것으로서, '합일(하나 됨 union)'에서 '일치(하나임 unity)'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것은 영속적 상태다)이라 부르신 것의 시작을 알린다. 우리가 은총의 여러 단계를 거쳐 감으로써 향심 기도와 관상 생활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한다. 각 단계들 사이에는 어둔 밤뿐 아니라 기쁨의 평지도 있으며, 두 가지 모두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결과들이 수반된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어둔 밤은 아마도 심리적 상태와 관계된 것일 터이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은, 우리가 그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영적 고통이다.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은 현세의 환난과 시련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듯하지만, 하느님 사랑에 대한 불굴의 신뢰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말한다.

나의 향심 기도 수련의 열매

김현옥 안나

향심 기도는 나에게 있어 생활의 길잡이이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향기를 지닌 인생의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며, 자유를 향해 나는 날개입니다. 이제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 할 수 있고, 내려놓아야 호흡할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터득했으며, 벼랑 끝에서도 애원하며 하느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게 되었으니 이를 은총의 열매로 여깁니다.

딸을 성당에 보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남에게 모습을 보이기 싫어 성당에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통한 주님의 이끄심을 못 이겨 세례를 받고 이런저런 기도를 다양하게 해보았지만 나의 악습이 고쳐지지 않아 향심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두었을 뿐 의료사고로 생긴 다리의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선입견 등이 신경 쓰여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를 두고 기다리던 중에 논산 씨튼 영성의 집 소개피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너머 산이라더니,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묵상적 걷기는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숴 버렸으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 되었고 매 기도 시간마다 움츠러드는 자신을 보며 하느님께 하소연하며 봉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없었던 심리에 관한 강의들은 나를 놀라게도 했고 울리기도 수없이 했으며, 치유되고 싶은 마음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부터 치유가 되어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두더지처럼 파고들어가서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에 사람을 우울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며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을 부리게 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에 기도의 수련으로 치유된다는 말씀에 귀가 번쩍했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루 두번의 수련을 결심하고 오전, 오후 저수지에 물을 대는 마음으로 아무 기대감 없이 교육받은 대로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 안으로 들어 갈수록 벽에 부딪치고, 짜증과 분노가 올라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기는 한가?' 하는 불평과 함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퇴보하는 것 같았고, 평소에 긍정적인 것들이 짜증스럽게 여겨지며 자꾸 뒤틀리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피정에 참석하였고, 그것이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고, 나선형으로 반복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끊임없이 신앙서적도 읽으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피정 갈 때 마다 자존감이 살아나고,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며, 방어기제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경직된 마음의 힘이 빠지면서 자유로워짐을 느꼈습니다. '어?…… 이런 것이 수련의 매력이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더욱더 기도에 매진한 결과 삶에 활기를 얻게 되었고 희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있는 장애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 준 은총의 샘이었고, 이웃이 준 상처는 내 거짓자아를 꺼내주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겪어야 했고, 자신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눈을 뜨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으며, 용서라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내 탓을 상대방의 탓으로 고집하며 살았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며 배신한 삶과 같으며, 4일 걸리는 가나안 땅을 40년 돌아 들어간 역사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는 제 생명의 주인이시고 제 영육의 의사십니다.

사랑하올 주님.

당신은 제 생명의 주인이시고 제 영육의 의사이시니,

저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소서.

이웃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슬기로움을 주소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소서.

부족한 딸을 위해 한없이 사랑을 주시며 기다려 주신 주님! 따스한 봄날 가랑잎 속에서 아주 여리게 솟아오르는 새싹처럼 내 안의 짓눌렸던 감성도 아주 여리게 솟아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치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그만 일에도 가슴 설레고 뭉클함은 하느님 사랑의 숨결과 자비이며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만질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을 당신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윤미옥 테오도라

액션 단체 하나 가입한 곳 없이 성당에 다니던 중 향심 기도 소개 웍샵을 받았는데
본당신부님께서 향심 기도 모임의 총무로 봉사하라고 권하셨다.
그런데 그 초대가 괜시리 마음속으로부터 기쁘고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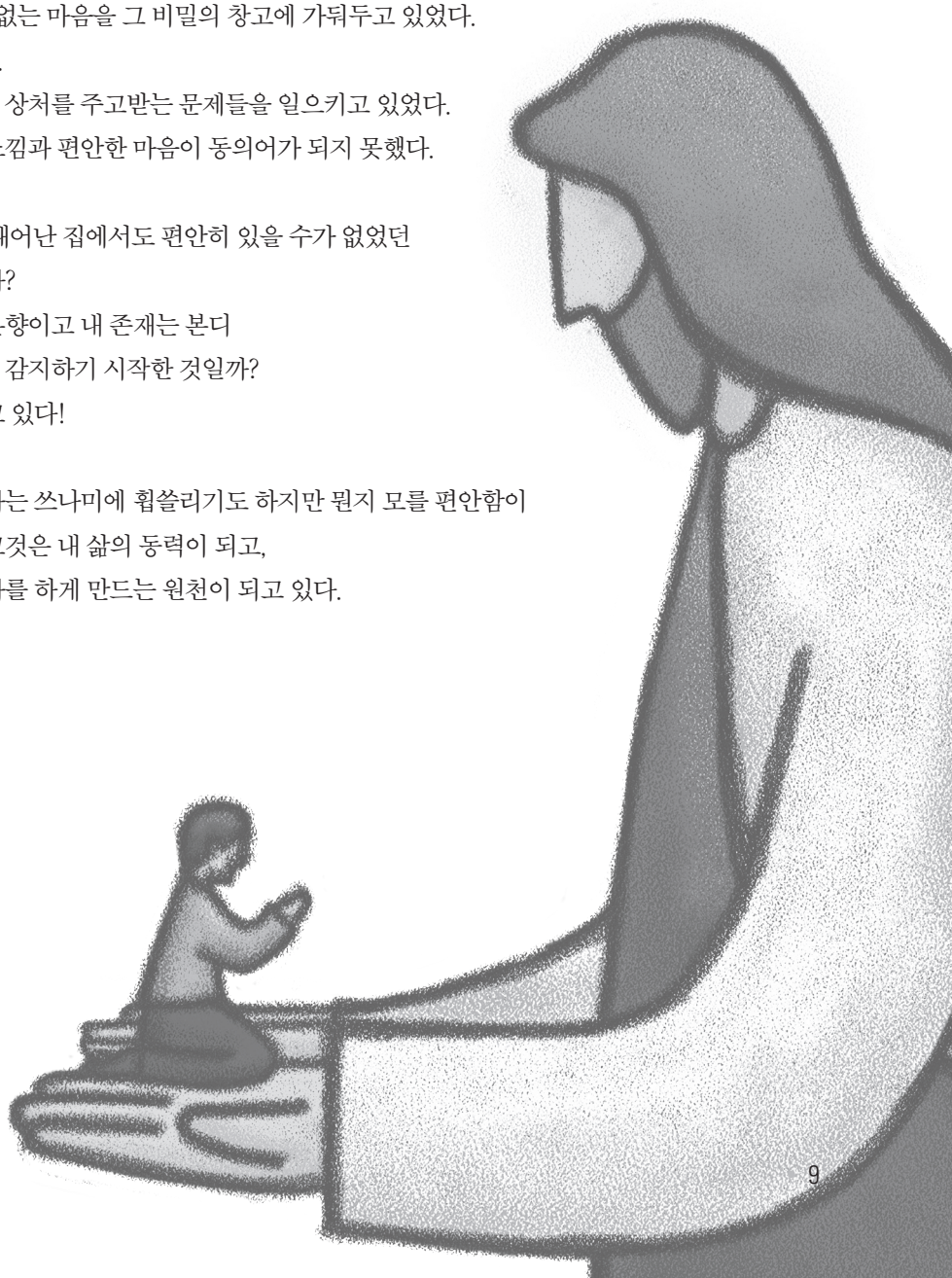
그렇게 향심 기도를 하며 기도 모임 봉사 한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데 귀가 뻥 열린 듯 미사 경문 하나가 마음속을 뚫고 들어 왔다.
“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 날 이후로 사제가 이 미사경문을 읊을 때면 늘 가슴이 뛴다.
그러나 미사 때 뛰는 가슴과는 달리
기도 모임 봉사는 힘들고! 외롭고! 맘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두 번 향심 기도드리는 것은 별로 애쓰지 않고도
그냥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향심 기도’라는 한쪽 팔로는 나를 강하게 끌어안으시고,
‘봉사’라는 다른 한쪽 팔로는 나를 거세게 밀어내시는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곤 했다.

향심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 언젠가부터
“이것은 결코 떠나 본 일이 없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고, 늘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인식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178쪽)라는
키팅 신부님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싹이 터 자리하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2010년 9박 10일 피정 때 피정지도 신부님의 강의 중 들었던
한마디 간단한 영어 표기가 묘하니 나를 사로잡으면서부터이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하느님 현존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로 기억 된다.
“a sense of coming home" = 편안함
편안함! 이 집으로 돌아올 때의 느낌! 이라고?
나에겐 편안함과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결코 같지가 않은데.....
그때의 그 생경함은 잊을 수가 없다.

피정 이후로도 그 표현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묵상으로 계속 이끌어 갔다.
내 인생의 고고학 탐사로 나를 인도했다.
네다섯 살 무렵, 내가 던진 뭔가가 세 살 터울의 남동생의 눈에 맞아
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만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첫 기억으로 각인되어 40년이 넘게 마음 깊은 곳 비밀의 창고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처박혀 있었는데,
너무나 싫고 두려워서 도망쳐 온 그곳의 빗장을 열도록 인도하셨다.
부모님께서는 한마디도 네 잘못이다는 비난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용서 할 수 없는 마음을 그 비밀의 창고에 가둬두고 있었다.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은 내 삶에서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나에겐 집에 돌아오는 느낌과 편안한 마음이 동의어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향심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집에서도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던
내 영혼이 안식을 찾은 것일까?
아버지 하느님의 집이 나의 본향이고 내 존재는 본디
그곳에 뿌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일까?
아무튼 나는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

현실적인 삶과 기도 모임 봉사는 쓰나미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뭔지 모를 편안함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컵 하나라도 챙겨다 놓는 봉사를 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고 있다.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향심 기도

안은경 발렌티나

스물 중반, 친구와 성당 문을 두드렸다. 언덕 위 공사 중이던 성당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줄 것 같았다. 어릴 적 교회에 다녔지만 왠지 성당이 더 편할 거 같았다. 세례를 받고 청년부, 성가대 활동이 재미있어서 성당에 다녔다.

듬직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무언가 갈증이 남았다. 문제가 생길 적마다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 힘든 것이라고, 결혼 전에도 문제는 있어왔다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느냐고 자문하곤 했다. 그런데 자잘하다 여겼던 문제들이 쌓이며 단단한 바위가 되어 날 짓눌렀다. 의사소통의 단절은 가족 간의 오해를 불러왔고 간격은 넓어지기만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성격 탓인가? 가끔 들르는 성당에서도 답답하기만 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으니 해답도 이 안에 있다. 신앙은 위안은 주겠지만 세상사와는 별개라는 게 당시 내 생각이었다.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받으면서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뜸하던 성당도 자주 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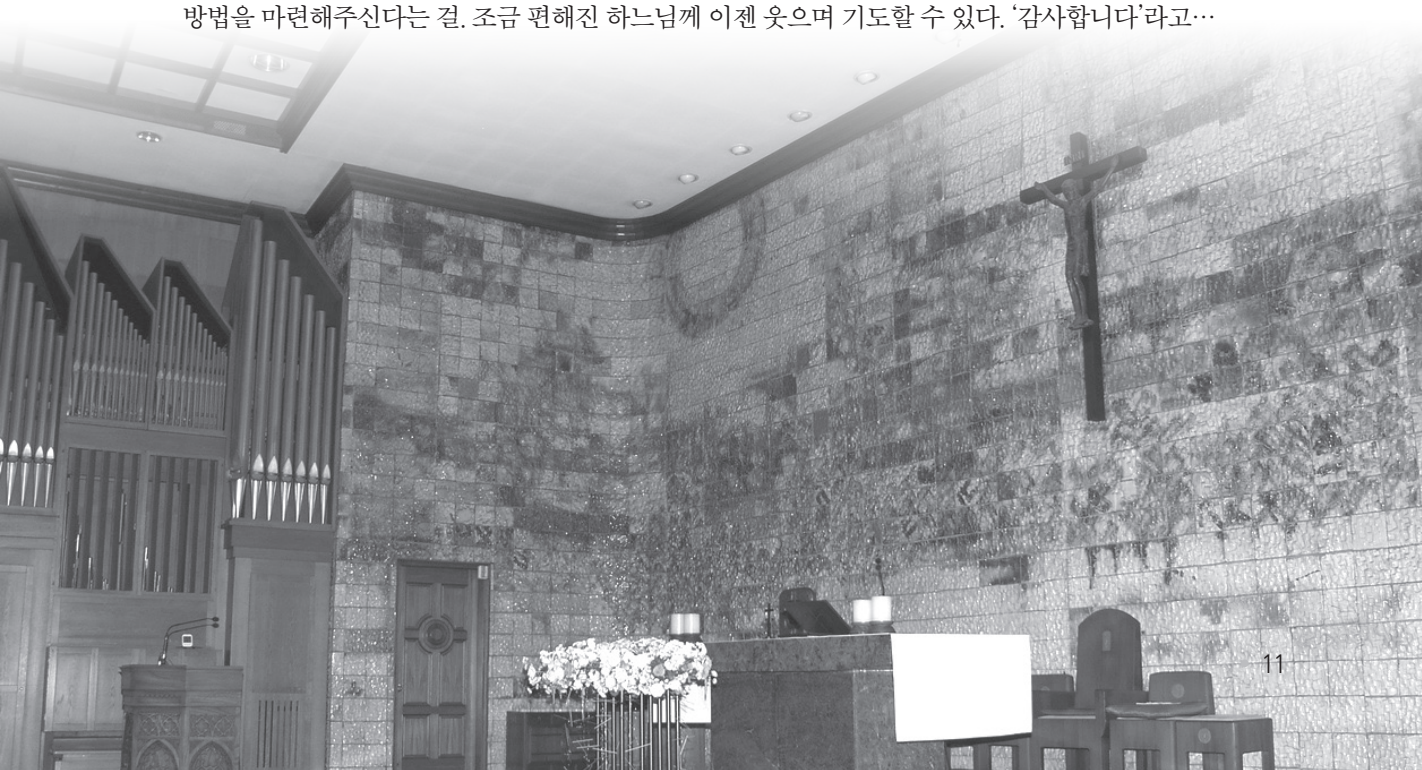
그즈음 향심 기도 권유를 받았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성가, 말씀은 보이기라도 하는데, 기도는 너무 막연했다. 반신반의하며 기도 모임에 앉아 있노라니 졸렸다. 집중이 안 되어 안절부절 못했고, '거룩한 단어'만 수십 번 읊조리며 시간을 보냈다.

좀 더 익숙해지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좋았다. 그런데 케케묵은 것들은 왜 올라오는지 참 황당할 밖에…….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상처, 거짓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괜한 걸 하나' 싶었다. '그렇게 건드릴 것까진 없잖아, 사는데 큰 문제도 없는데' 반항하다가 어느 순간 힘을 빼버리니 보였다. 아주 큰 문제, 치유 받아야할 상처가.

마음은 억눌려 있었고 난 회피하고 있었다. 하느님은 늘 계셨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일 뿐,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려는 마음의 시작이었다. 저 멀리 계시던 하느님이 이제는 내 가정, 이웃 안에 오셨다. 내가 아는 하느님은 극히 일부일 뿐이고, 내 좁은 생각이 신앙을 왜곡해왔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꽉 조인 벨트를 풀었다고나 할까? 좀 느긋해졌다.

'감사합니다' 성체 앞에서 저절로 단어가 나왔다.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싸우느라 지금의 감사함을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주변이 달리 보이고 가족, 미사 시간도 소중하게 와 닿았다. 하지만 기도를 소홀히 할 때면 이런 충만함은 단숨에 허무함으로 바뀐다. '결국 아무것도 없을 거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맞춰지는 거야.' 생각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 둘 수가 없게 되었다. 날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또 무엇이든 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머리에 머무는 이것이 아주 가-끔 가슴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향심 기도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은 나를 만나는 여정'이라고 한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된다'고도 한다. 기도를 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알고 계시는 하느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의탁하게 되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방법을 마련해주신다는 걸. 조금 편해진 하느님께 이젠 웃으며 기도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라고…



2013년도 향심기도 피정계획

◈ 소개 피정 · 입문 연수 · 후속 및 심화피정 · 집중피정 ◈

피 정		일 자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1일 소개 피정		4월 1일(월)	(순천) 조례동 성당	천정철 신부	010-6288-0237	누구나
		4월 6일(토) 7월 13일(토) 10월 9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영성센터	김경순 수녀	02)744-9825 010-4511-9825	
1박 2일 소개피정		3월 9일(토) ~ 3월 10일(일) 5월 17일(금) ~ 5월 18일(토) 8월 15일(목) ~ 8월 16일(금) 9월 7일(토) ~ 9월 8일(일) 12월 14(토) ~ 12월 15일(일) 오후 3시 ~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4	
상반기: 입문연수	낮반	4월 9일 / 16일 5월 7일 / 21일 6월 11일 / 18일 매주 (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거창) 거창 성당	이청준 신부	010-9427-7894	
	저녁반	4월 15일 / 22일 5월 6일 6월 10일 매주 (월) 오후 8시 ~ 10시				
하반기: 인간조건	낮반	9월 24일 10월 8일 / 22일 11월 12일 / 19일 매주 (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교리교사 후속강의 (3회)		1월 13일 / 20일 / 27일 매주 (일) 오후 2시 ~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전영 신부 김종순 수녀 장미자 자매	010-6288-0237	소개강의 및 피정을 마친 분들
3박 4일 후속심화 피정		5월 16일(목) ~ 5월 19일(일) 9월 5일 (목) ~ 9월 8일(일) 12월 19일(목) ~ 12월 22일(일) 오후 3시 ~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4	
6주 후속강의		* 소개피정이 끝난 후에 차후에 일자 발표함.	(성북동) 씨튼영성센터	김경순 수녀	02)744-9825	
7박 8일 집중피정		8월 7일(수) ~ 8월 14일(수)				심화피정을 끝마친 분들 (선착순 15명)
7박 8일 집중피정		2014년 1월 3일(금) ~ 1월 10일(금)				
9박 10일 집중피정		10월 29일(금) ~ 11월 7일(목) 오후 3시 ~ 오후 3시까지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상지원단 교수진	02)421-1968	3박 4일 이상 심화피정을 하신 분들 (선착순 30명)

◈ 월 침묵 및 쇄신의 날 · 인간조건과 영적 여정 ◈

피 정		일 자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월 침묵 피정		3월 19일(화) 4월 16일(화) 5월 21일(화) 6월 18일(화) 7월 16일(화) 9월 10일(화) 10월 15일(화) 11월 19일(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영성센터	김경순 수녀	02) 744-9825 011-4511-9825	향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월 쇄신의 날 (부산, 울산)	향심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3월 24일(일) 5월 26일(일) 6월 30일(일) 7월 28일(일) 8월 25일(일) 9월 29일(일) 10월 27일(일) 11월 24일(일)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1-489-1239 010-7655-2914 011-834-4997	
월 쇄신의 날 (광주)		1월 7일(월)	(광주) 중흥동	김종걸 신부	010-6288-0237	
		2월 4일(월)		장미자 데레사		
		3월 4일(월)		정규완 신부		
		4월 1일(월)		천정철 신부		
		5월 6일(월)		천정철 신부		
		6월 3일(월) 지역 쇄신의 날		천정철 신부		
		7월 1일(월)		전영 신부		
		8월 5일(월)		전영 신부		
		9월 2일(월)		정규완 신부		
		10월 7일(월)		김종걸 신부		
		11월 4일(월) 지역 쇄신의 날		진토마스모어 신부		
인간 조건과 영적 여정		3월 1일(금) ~ 3월 3일(일) 오후 4시 ~ 오후 4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김종순 수녀	041)733~2992~4	누구나
		6월 6일(목) ~ 6월 9일(일) 오후 3시 ~ 오후 3시				
		11월 15일(금) ~ 11월 17일(일) 오후 3시 ~ 오후 3시				

◈ 성인아이 치유프로그램 · 렉시오 디비나 ◈

피 정	일 자	장 소	봉 사	연 락 처	신청자격
성인아이 치유 프로그램 (12주)	9월 5일 ~ 매주 (목) 오전 10시 ~ 12시	(성북동) 씨튼영성센터	김경순 수녀	02)744-9825	누구나
렉시오 디비나 기도모임 (12주)	9월 5일 ~ 매주 (목) 오전 10시 ~ 12시				

소기도 모임

지역	장 소	일 시	연락처	전화번호
서울	송파동 모임 (전 사무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새길교회	①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최성림 목사	010-3741-0252
		②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④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인천	만수6동 성당	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강경애 세실리아	032)463-7867 010-4780-7867
		②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연수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김경선 막달레나	010-3587-8085
	도창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안옥순 스텔라	010-7313-0799
	가정1동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김경순 아델라	010-3315-9657
		②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이향교 모니카	010-7677-7539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최미옥 요안나	018-203-2051
		④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손미연 레지나	010-8205-9336
	*계양교회(성공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경기	(수원)분당요한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명옥 안젤라	010-8726-3054
		②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주호자 세노리나	011-9000-2150
	(수원)망포동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김순옥 올림피아	010-3315-9657
		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최진희 세실리아	010-7677-7539
		③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이난영 안나	018-203-2051
		④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유경 베네딕다	010-8205-9336

경기	(용인) 동백성마리아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이호윤 안젤라	010-3219-9794
	(용인) 동백성요셉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미의 벨라뎃다	010-9034-7043
	(의정부)용현동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박선화 루도비까	010-2332-1816
	(의정부)녹양동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이혜선 세실리아	010-8731-8655
	(남양주)마석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군포)예수랑 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전주희 목사	010-7963-0091
	*(고양)살림 교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호 목사	031)912-4930 010-8520-4935
대전	내동성당-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황경해 아녜스	042)533-6649 010-6630-6649
	도룡동 성당- 성체 조배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박정옥데레사	010-8804-2160
	궁동 성당 - 유아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황경자 데레사	042) 861-0281 010-6888-0281
	복수동 성당-유아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문숙희 데레사	010-6756-7990
충북	복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김순년 글라라	043)233-9295
	영운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우형옥 루시아	010-5480-8520
	사직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최소자 카타리나	010-6506-8779
	신봉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현수 아가다	010-9937-3540
	분평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최옥희 미리암	010-8844-0633
	청산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미사 후	곽동금 아녜스	043) 733-2795
	미원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천경민 아가다	011-8827-2060
	충주 지역 _ 자택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권인숙 레지나	010-5604-3439
부산	좌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정예규 아네스	010-3878-9638
	남천동 성당_112호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부곡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김귀연 세실리아	010-2322-5690
	민락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유향미 글라라	010-5590-0333
	활천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조해란 안젤라	010-5554-5488
	남산 성당	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황춘희 카타리나	010-9334-2171
		②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권정례 빅토리아	010-9838-5442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①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오후 4시	왕영수 신부	052)239-1249 011-488-1239
		*②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대구	만촌1동 성당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노경희 크리스티나	010-6864-4668
	본리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동섭 광헌아우구스티노	010-3577-0639
	신서 성당 _ 자택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김미남 율리안나	010-2223-4484
경남	(진주)금산 성당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황혜순 율리아나	010-9667-8944
	(마산)삼계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김영희 안젤라	010-7601-0359
	(창원)사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최정옥 루갈다	010-9338-7078
	(거제)장승포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여형구 레지나	017-296-0370
	(거제)옥포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복순 아네스	010-9689-0072
	(진해)용원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김명순스콜라스티카	010-2363-5702
경주	성동 성당 _ 향심 기도실 2층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광주	중흥동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광자 베로니카	010-6756-0039
		②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김경시 아우구스티누스	010-7688-8633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김인심 라피엘라	010-5089-1204
		④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신오례 아가다	010-4280-4608
		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임희숙 피데스	010-2699-5309
	염주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홍화강 카타리나	010-9348-3681
	학운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장동님 스텔라	010-8845-1493
	비아 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표금숙 로사리아	010-2683-4103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안은경 발렌티나	016-9885-8814
	쌍촌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인헌 프란치스코	010-9611-4303
	금호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최복희 데레사	010-6690-1097
	계림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정종남 모니카	010-2663-7790
담양	창 평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신영애 안나	010-2619-5280
순천	조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장호정 마리아막달레나	010-4855-0190
	저전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덕자 미카엘라	010-2626-3109

여수	선원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김기영 엘리사벳	010-7655-3952
	소호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이성숙 데레사	010-2616-3189
광양	광영동 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김혜연 까리따스	010-4569-9360
곡성	곡성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유효숙 스텔라	010-6680-2073
캐나다	(토론토) 성 김대건안드레아 성당	①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신 헬렌	905-709-0414 95-886-1147
		②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김귀란 안나	416-868-6821 416-878-3921
		③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황보태영 요셉	905-760-0714 416-319-4321 416-785-3527
	(토론토) 예수 성심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이 그레고리오	416-620-0047 416-347-7446
	(몬트리올) 순교자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하종원 스테파노	514-762-4879
		②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홍준기 루가	514-426-5887
	(오타와) 한국 순교자 성당	*대표 봉사자에게 시간 문의	임동철 토마스아퀴나스	613-422-0821
	(밴쿠버) 성 김대건성당	*대표 봉사자에게 시간 문의	김종갑 베드로	604-309-6434
	(밴쿠버) 써리 본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30분	고행순 카타리나	H)604-461-0862 C)778-996-8651
		②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정태희 빈첸시오	B)604-576-2872 H)604-507-9659
	(밴쿠버) 성 유대철 공소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민인가 세라피나	C)604-506-5249
	(밴쿠버) 성 정하상 공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김혜경 로사	H)604-630-2480 C)604-999-3422
	(밴쿠버) 에보츠포드 공소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조영민 가브리엘	H)604-755-9357 C)604-375-9659
미국	(오클랜드) 성 김대건 성당	*대표 봉사자에게 시간 문의	정태승 토마스	H)925-964-9248 C)925-683-2047
	(타코마) 성 정하상바오로성당	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이해옥 아녜스	253-473-2217
		②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박혜성 젬마	253-229-3437
		③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김금선 안젤라	253-312-4748
	(타코마) 올림피아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김종희 헬레나	H)360-438-3993 C)360-250-0740
중국	(북경) 한인 공동체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문희 벨라뎃다	번호 미기재 함

국제관상지원단 소식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엄무광(Patrick Uhm) 형제가 2011년 8월 29일 돌아가셨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상지원단을 위해 봉사하였다. 아주 최근에는 'the Circle of Service(현재 관상지원단 이사회)'에서 일했다. 그는 영적 여정과 향심 기도에 투신했으며 가는 곳마다, 특히 미국 한인사회와 한국에 향심 기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9월에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기 바로 전에, 그는 영적 여정 시리즈에 근거한 48개의 주제를 다룬 16개의 DVD 시리즈 한글화 작업을 위해 한국에 다녀왔었다. 그는 일생 동안 모국을 방문하며 그 형성에 도움을 주었던 100여 개 이상의 향심 기도 그룹에 향심 기도 후속 자료를 제공하기를 원했다. 그는 머리와 가슴으로 살았고, 언제나 영으로 빛난다.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느님 현존 안에서 산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는 201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연차 총회에서 특별한 찬사를 받았다.(발췌 _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8권 1호, 2011년 12월 소식 / 칼 아리코 신부)

* 추신 _ 한국관상지원단은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 빈소를 마련해 놓고 향심 회원들과 함께 임상교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주례로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또한 부산, 광주지역에서도 고인을 위한 장례미사가 지역 향심 기도 회원들과 함께 봉헌되었다.

한국관상지원단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봉사자 피정이 3박 4일 동안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향심 기도 회원과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봉사자로서의 갖춰야 할 지침들과 삶 안에서의 거짓 자아 활동 체계 등등에 관해 이청준 신부님의 강의도 듣고, 미래의 비전 설정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로 서로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윤행도 대표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몇 가지의 사항들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봉사자 피정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 기도 모임은 참석하는 인원수에 얽매이지 말고 향심 기도를 하십시오.

2. 본당의 환경이 바꾸면 그 곳의 상황에 맞춰서 향심 기도를 하십시오.

3. 영적 여정은 고독하고, 멀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향심 기도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4.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에게 향심 기도를 매료시킵시다. 향심 기도 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웃에게 전염되어 갑니다.

5.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관상지원단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6. 기도도 습관입니다. 향심 기도에 중독되십시오.

7. 기본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즉 신학적, 행정적 원칙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8. 우리는 봉사자로서 왜 향심 기도에 봉사하는지? 자신의 숨은 의도를 하느님께 잘 여쭙도록 하십시오. 거짓 자아는 하느님께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9. 봉사자는 상대방이 나누는 얘기를 마음을 다하여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나누기 할 때는 너무 나서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10.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배려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11. 한국관상지원단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멋은 무엇일까요?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가꾸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각 지역별 소식

■ **서 울** ■

서울지역 기도 모임은 홈페이지 www.hyangsim.com을 이용하여 소기도 모임에 관한 일정 및 장소,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씨튼 피정의 집이 새로이 준공하여 2013년 1월 4일 '씨튼영성센터'로 축성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건물신축 공사로 인해 돈암동에 있는 골롬반 센터를 이용했지만, 2013년 1월부터는 향심 기도 소개피정 및 후속, 월 침묵피정, 기타 피정 등은 씨튼영성센터(전화: 02-744-9825)에서 이루어집니다.

■ **인 천** ■

만수6동 성당에서 2개의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성공회 계양교회에서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향심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바랍니다. (간사 연락처: 010-4780-7867)

■ **대 전** ■

매월 모임을 내동 성당에서 가졌으며, 지부 쇄신의 날 6월 23일에는 청주지부 향심 기도 회원님들과 함께 약 60명이 모여 이청준 신부로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9월 첫째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지부 자체적으로 소개와 후속 강의를 8주간 가졌습니다. 13명의 참석자가 있었으며, 박봉석 요한 형제의 강의와 향심 기도의 영적여정 DVD강의 그리고 임상교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마무리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존의 월 모임의 성격을 변경하여, 첫째와 셋째 토요일 오전에 소기도 모임 봉사자들의 기도공부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며, 박봉석 요한 형제가 공부를 주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기도 참석자는 가까운 소기도 모임에서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부 내에서 새로운 기도 수련자들을 안내하기 위한 통신 안내를 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의 소기도 모임 봉사자들이 활동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부 쇄신의 날과 지부 자체적인 소개 강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청 주** ■

8개의 소기도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6월에는 대전지역 쇄신의 날에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이청준 신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40명이 쇄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한국관상지원단에서 개최(장소 _ 씨튼 영성의 집)하는 3박 4일 봉사자 피정에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정은 차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 **마 산** ■

마산 지부 향심 기도 회원들은 9월 10일에서 20일까지 이청준 신부와 함께) 터어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안식년을 마친 이청준 신부는 거창 본당으로 부임을 해서 향심 기도 입문강의 및 인간조건 등의 강의를 낮반, 저녁반으로 나눠서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행도 신부는 금산 성당에서 소개강의를 하여 새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소기도 모임이 용원, 금산, 삼계 성당에서 탄생되었습니다.

■ **부 산 · 울 산** ■

부산에는 7월에 부곡성당에서 소기도 모임이 탄생되어서 현재 일곱 개의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장미자(데레사, 전 광주지부 간사)강사가 향심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에

대하여 9개월 동안 시간을 내어 이곳에 와서 강의와 많은 도움을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곳에 와서 향심 기도를 수련한 김미남(율리안나) 자매가 대구지역에서 기도회(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를 만들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 010-2223-4484)

■ 광 주 ■

광주에서는 2012년도에 장미자 데레사 자매의 강의로 학운동 성당에서 인간 조건이 2회 강의되었고, 염주동, 곡성, 순천 조례동, 계림동, 중흥동 성당에서 소개피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곡성, 계림동에 첫 기도회가 설립되었고, 5월, 8월에는 이청준 신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좋은 몫',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또한 김종순 수녀와 장미자 데레사 자매의 강의로 광주교구 교리교사(참석 인원-80명)들에게도 향심 기도를 소개하였고, 광주지부는 향심 기도를 안내하는 포스터도 제작해서 향심 기도를 하시는 정규완 신부, 전영 신부. 천정철 신분, 진토마스모어 신부, 김영재 형제, 장미자 자매와 봉사자들이 일치 안에서 향심 기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관상지원단에서 개최했던 3박 4일 봉사자 피정에도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간사로 김영재 알로이시오 형제가 선출되었습니다.

| 지역 간사 명단 및 연락처 |

- **사무국장** 박봉석 세례자 요한 010-6630-6649
- **인천지역**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 **청주지역** 연인래 아가다 010-9408-9670
- **마산지역** 김명순 스콜라스티카 010-2363-5702
- **서울지역** 한명숙 카타리나 011-9553-2374
- **대전지역** 김병연 요셉 010-2948-3852
- **광주지역** 김영재 알로이시오 018-6288-0237
- **부산지역** 차순희 바아 010-3572-4308

※ 각 지역에서 문의 사항이나 토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상지원단은 향심 기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향심 기도에 투신하는 모든 분들의 영적 조직망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널리 보급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1. 가입방법 : 02) 421-1968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dreamwiz.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은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상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반송되어 오는 소식지가 많습니다.**
변경된 주소 또는 E-mail을 알려 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